

그 사람 지금은

(23) 이기흥 변호사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 윤천동

1977년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 변론

검사로서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는 변호사 개업과 함께 법집행(감사)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정계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검찰 생리가 맞지 않았던 그가 조변석개하는 정치 풍토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수년간 정치활동을 했지만 역시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독재에 항거하다 구속된 학생들과 재야 인사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하며 민주화운동에 뛰어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과 유신선포 후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해 최일선에서 반대투쟁을 벌였고, 광주YMCA와 YWCA, 국제엠네스티(사면위원회) 운동을 통해 유신반대 세력을 조직화하고 싸우면서 민주인사들의 변론과 옥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5·18민중항쟁이 발생하자 홍남순 변호사, 조아라 여사, 김성용 신부 등과 함께 재야측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그 결과로 군법회의에 내란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7개월 여간의 옥고를 치르고,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재야 활동을 하던 1967년 6·8국회의원 부정선거 규탄성명서를 읽고 있는 이기흥 변호사.

이후 28일 보안대로 연행된 뒤, 구속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때 까지 7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줄곧 5·18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매달렸던 1996년 제2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오르면서 5·18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시킨다.

노태우 정권 때 국민성금 형식으로 거둬 광주시로 전달된 48억원의 기금을 5·18기념재단으로 귀속시켜 기념재단의 기반을 닦았다.

당시 송연중 시장과의 담판 끝에 15년여 동안 잠자던 기금을 기념재단으로 가져와 각종 5·18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는 기금이 90억원을 넘었다.

“광주 세계 속 민주화도시로 키우는 것

살아있는 광주 시민들의 의무이다”

96, 97년 때만 해도 지금같이 5·18관련 단체들이 정립돼 있지 않아 불협화음이 잦았을 뿐만 아니라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수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48억원의 기금을 기념재단으로 가져 온 그는 다양한 5월 관련 사업들을 펼치면서 단체들의 화합을 도모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끝으로 대외 활동을 접은 그는 독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틈나는대로 낚시와 수렵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 변호사는 “80년 5·18항쟁으로 민주화의 성지로 우뚝 선 광주, 광주를 세계속의 민주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살아있는 광주 시민들의 의무”라며 “이제 원로들은 뒷자리로 물러서고, 광주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달려있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저수지 있는 옛 방죽거리 67년 상무근린공원 지정

도시 발달은 시가지 확대로 이어진다. 광주도 옛날 농촌이 도회로 변한 곳이 많다. 과거 경관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땅이름으로 남아있다. 서구 관내 염주동과 윤천동은 방정·행정동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지구(地區)적 성격을 갖고있다.

윤천동은 저수지가 있어 '방죽거리'라 칭하다가 1968년 광송 간 새 도로가 나고, 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개되면서 널리 쓰였다. 최근 지하철 호남대역이 윤천역으로 개칭됐다.

윤천역 근처의 연혁을 보자. 조선후계 군분(軍分)면 관할로 쌍류(雙柳)촌, 댓골(竹谷, 宅洞), 노치(老雉), 소사골(杓沙洞)이 있었다. 1914년 광산군 극락(極樂)면 쌍촌리, 1955년 광주시 유림(柳林)출장소 쌍촌동이 됐다. 1961년 서부출장소 상무(尙武)동이었는데 1979년 다시 쌍촌동이 됐다.

효사동 최항규(71)씨는 1907년 개통된 광송 간 구도로(신작로)가에 '구름시암'이 있었다고 제보해주었다. 한자로 '운천(雲泉)'은 치평동 200(다사량2길55)번지 배운문씨 집 바로 앞에 있던 샘이었다. 윤천역 북편 70m 거리다. 물맛이 좋고, 수량이 풍부해 나그네의 쉼터도 됐고, 바로 곁에서 정음종씨가 목욕탕을 운영했다고 한다.



1980년대 말 윤천마을 전경.

윤천마을은 5·18공원이 조성된 계수봉 무각사 남쪽기슭에 20여 집이 아스팔트길을 따라 가게와 함께 위치했다. 1910년대 188, 200번지는 마쓰오(松尾幸右工門)·기하라(木原末五郎)가 소유자였다.

윤천저수지는 조선시대 읍지에 기록이 없고, 일제 때 자료에서 근거를 찾았다. 1915년 사정(査定)때 토지대장에 868번지 2천318평이 지소(池沼)로 등재됐고, 869-2번지 1만8천866평이 1938년 임야에서 유지(溜池)로 변경되어 있다. 1921년 1/5만 지형도에도 마른천 수로에 저수지가 그려져 있다.

마른천은 유로연장이 5km 정도로 백일지구 방울샘에서 발원하여 소사동 추너모뚝이 원수새미(툰뚝)를 거쳐 저수지로 유입된 뒤, 노루뚝을 지나 말골래 들을 적시다가 사월산 밑 월산마을 북편에서 광주천에 합류했다.

1967년 상무근린공원으로 7만4천200㎡가 지정됐고, 1998년 광주시 저수지현황 자료에는 1951년 준공, 수혜면적 78ha, 폭넓이 3m, 폭길이 420m, 저수량 15만6천톤, 유역면적 100ha로 나와 있다.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서 도심속 생태환경회복의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윤천사는 저수지 남서편 백석산 남쪽기슭 99번지에 있다. 1930년대 극락암(極樂庵), 1970년대 윤천사, 1980년대 정토사(淨土寺)·백석사(白石寺), 1990년대 극락암, 최근 다시 윤천사로 칭했다.

절 안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1974년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됐다. 유덕동 석조여래좌상도 본래 이곳에 있었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위원장)

당시 찰씨 검거 아닌 자수사실 밝혀내

‘사형 면제 노력’ 끝내 실패 아쉬워

그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들은 대부분 인권옹호와 사회적 실현을 자신의 방식대로 구체화하려는 것들이었다.

1977년 일명 ‘무등산타잔’ 사건의 주인공인 박흥숙씨를 변호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박흥숙 사건’은 1977년 4월20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도립공원의 무등산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무허가건물에 불을 질러, 이에 격분한 박씨가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박흥숙이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 2심부터 변론을 맡았다.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순에 의해 발생했으며, 잘못된 행정집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사국하고도 밀접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박씨가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과오를 누우치고 있으며, 철거반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쳐자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했다.

“3심이 진행될 때는 박씨를 어떻게 해서든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고 갖은 연구를 했습니다. 궁리 끝에 사형수들의 심정과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의 소회를 담은 책자(도서명은 기억나지 않음)를 직접 구입해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수개월간의 변호 활동을 벌인 끝에 박씨가 범행 후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다는 경찰 조사의 내용과 달리 박씨가 자수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라 언론들은 일제히 박씨가 서울 이모

- 약력**
- ▲1933년 해남 계곡면 법곡리 출생.
 - ▲춘천·광주·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시변호사회 회장
 - ▲전남대총동창회 회장
 - ▲5·18민주화운동 재야측 수습위원
 - ▲5·18기념재단 이사장

집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조사 결과, 박씨는 도주 중에 여수에서 우연히 만난 간첩을 중앙정보부에 신고한 뒤 스스로 정보부에 들어가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박씨의 사형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인연을 맺어왔으나 80년 5월 5·18관련자로 검거되면서 서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이 변호사는 보안대에서 광주교도소 옮겨진 뒤, 80년 10월26일 새벽 박흥숙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야 수습위원들과 울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80년 5월22일 오전 10시에 천주교 남동성당에서 김성용 신부와 조아라 여사, 홍남순 변호사 등 10여명과 함께 재야측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음 날인 23일 오전 이 변호사 등 재야측 수습위원들은 도청내 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뒤, 총기 회수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광주 CBS 일본선교여행 후쿠오카-하마쓰-오사카-시즈오카-미야자키-후쿠오카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일본선교여행은... (여행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여행기간: 2007년 4월 17일(화) - 24일(화)

오전출발: 00시(신주)

입기금액: 대외 50만원, 2차-3차 15.7만원(입수가 차감)

여행금: 100,000원(여행비, 숙박비, 교통비)

입금계좌: 광주은행 138-127-000137 (계좌번호: 000137)

입수문의: 062) 376-8500-11

주최: 광주CBS

여행안내: (여행의 세부 일정, 주의사항 등)

문의처: (문의할 수 있는 곳)